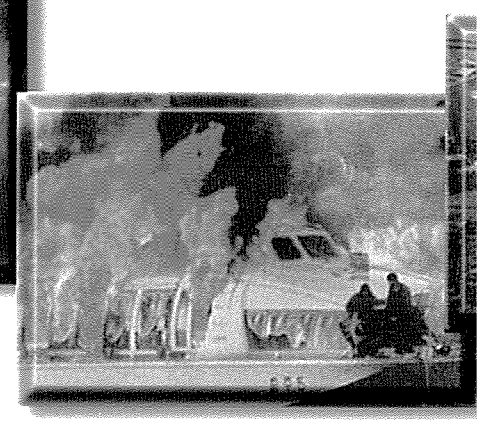
화재시 행동요령

1. 불이 났을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이게 되며 때로는 흥분하여 평상시보다 판단력이 떨어져 우왕 좌왕 하다가 연기에 질식되거나, 높은데서 뛰어내려 귀중한 인명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어떤 경우에는 혼자 불을 끄려고 노력하다 불이 확대되어 미쳐 피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화재시 행동 요령을 평상시 염두에 두고 훈련하여 항상 대비하여야 한다.



가. 화재 신고

불이 났다는 것을 주변에 신속하게 알린다
- 경보기, 육성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주위 사람에게 알려 긴급 피난하게 하여야 한다
- 전화로 119에 신고하여 신속히 소방차가 출동하게 하여야 한다.

(예) 정확하고 침착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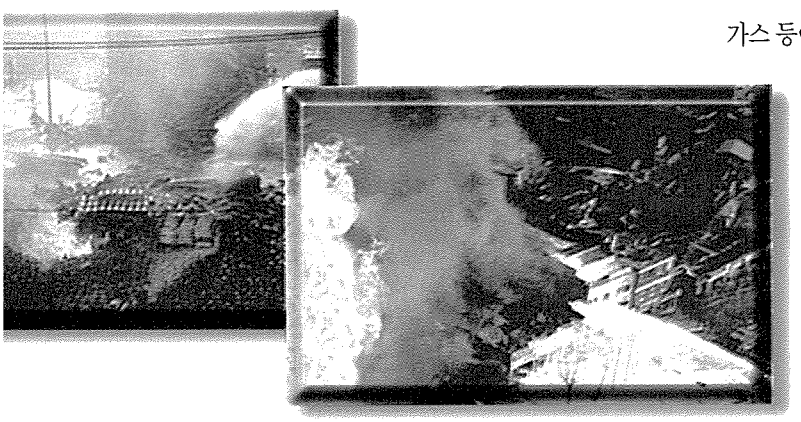
"여기는 종로구 수송동 00번지 한국 통신 뒤 0층 건물의 지하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신고자의 전화 번호를 알려준다.
가능하면 무엇이 타고 있는지와 사람이 거주하는지를 알려주면 더욱 좋다.

나. 초기 소화

1) 화재 신고 후 화재의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 전기 스위치를 내린다(분전반이나 차단기 등).
- 석유 난로 등에 의한 화재일 때는 담요나 이불을 물에 적셔서 뒤집어 씌운다.
- 가스 화재는 용기의 밸브를 잠근다.

연기속 각종 유해 성분

발생가스＼물품	위험농도	목재	양모	비단	나일론	우레탄	아크릴
이산화탄소(CO2)	10%	0.43	0.15	0.36	0.36	0.36	0.36
일산화탄소(CO)	0.2%	0.30	0.07	0.04	0.04	0.20	0.04
시안화수소(HCN)	110PPM		63	45		70	230
암모니아(NH4)	0.25%		0.07	0.12	0.03		0.01
알데히드류(-CHO)	800PPM	53			176	680	



가스 등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 연기는 짧은 시간에 쉽게 건물의 수직 부분으로 올라가므로 연기의 피해로 인명 피해가 증가하는 것이 최근 화재의 특징이다. (연기 수직 이동: 약 3~5m/sec, 수평 이동: 0.3~0.8m/sec)
- 우리 가정에 있는 물건들이 불에 탈 때 발생하는 유독 가스

2. 안전한 긴급 대피 요령

안전한 긴급 대피 요령 공포감을 극복하고 주변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한다.

- 실내에 갇혀 있을 때는 갑자기 문을 열면 안된다.
- 문의 손잡이 등이 뜨거우면 문을 열면 위험하다.
- 피난할 때는 자세를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보호한다.
- 불이 난곳의 반대 방향 비상구를 이용한다.
- 상황 판단없이 높은데서 뛰어 내리면 안된다.
- 피난 시 화장실이나 통로의 막다른 곳은 위험하다.
- 엘리베이터의 이용은 위험하다(정전시 갇히게 된다).

고립되면 각종 수단을 동원하여 자기가 있는 곳을 알려야 한다.

〈자료제공 : 동작구 소방서〉

2) 기본적인 조치가 끝나면 소화기나 물을 이용하여 불을 끌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한다.

- 이때 주의할 점은 전기 화재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된다는 것이다.(감전 위험이 있다).
- 기름 종류의 화재에 물을 사용하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다.
- 가스 화재는 폭발성이 있으므로 갑자기 문을 열거나 전기 스위치 등을 조작하면 안된다.

다. 대피 유도 및 긴급 피난

- 연기속에 들어있는 각종 유해 성분
- 불이나면 물질이 연소할 때 연기속에 독성이 강한